

#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 1. 서



강 신 일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범세계화(Globalization)등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20세기 산업화 사회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 도래에 따라 기업들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무한 경쟁에서 살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각국은 소비자 및 생산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새로운 경쟁질서의 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업력을 축으로 하는 산업화에서 정보와 지식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종래의 인적·물적 생산요소의 확보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의 유기적인 협력의 조정능력에 달려 있다.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지식은 자원인 동시에 경쟁력의 원천이다. 지식경쟁력의 크기는 필요한 지식을 어떻게 경쟁력 제고에 쓸 수 있는 제도마련 및 기업의 대응노력에 달려 있다.

21세기의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은 범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무한 경쟁 하에서 경쟁우위를 찾기 위한 조직변화, 기술개발 투자증대 및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 배양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웃소싱, 전

■ 目 次 ■

- 1. 서
- 2. 21세기의 환경변화
  - 가. 지속적인 범세계화 물결
  - 나. 정보화 시대의 도래
- 3. 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방향
- 4.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략적 제휴, 기업의 지배구조조정, 기업문화 등을 고려한 조직변화와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가 정신의 창출 및 유지가 지식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과거의 노동과 자본을 성장의 원천으로 보고 정태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며 상품 및 요소 시장의 경쟁과 독점에 초점을 맞추는 이분법적인 경쟁정책의 논리를 벗어나 기술과 정보 또는 지식이 성장의 원천이 되는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지식사회 발전전략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 개발이 필요하다.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경제환경과 21세기의 새로운 환경변화의 차이를 비교하고 지식경제하에서의 기업 및 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방향을 제시하고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21세기의 환경변화

### 가. 지속적인 범세계화 물결

19세기말부터 시작하여 20세기초까지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후 있었던 범세계화의 물결이 21세기에는 훨씬 더 거대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는 기술의 발전, 시장의 강력한 믿음 증대 그리고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간의 증가하는 국제거래량 등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이 당해 국들에게 부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기본적으로 비교우위에 의한 전문화, 경쟁의 심화 및 기술의 이전 등이 각국의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실질적으로 높은 율의 경제성장, 높은 임금, 높은 자본수익률 및 높은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왔다.

1994년의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된 후 그

혜택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되었다. 각 국들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범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국내적 정부정책과 조화를 통해 국가적 주권을 유지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이고 각국은 특별 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심하게 범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의 자본이동의 보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게서는 오히려 과거 수년간의 경제 성장 과실이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잠식되었다. 국제 기구로부터 거대한 자본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자본개방에 따라 각국의 회계제도, 지배구조, 및 금융 제도 등에 대한 혁신이 국제적 규격에 따라 이루어지게 있고 국제 기구의 역할이 증대되어 어느 정도 국별 주권까지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범세계화가 일어나는 21세기는 기술 및 지적 경쟁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기술의 발달은 소비자가 보다 더 많은 시장정보를 쉽게 얻게 되어 기업은 다양한 소비자의 필요를 파악하여 신상품의 개발이 자주 일어나는 시장을 갖게 된다. 현재보다는 시장에서 더욱 더 격렬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 나. 정보화 시대의 도래

다가오는 21세기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이 주도하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로의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지난 한 세대 농업사회에서 그리고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우리에게는 또 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정말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변화일 것이다. 정보화는 탈산업화,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사회, 많은 정보의 공급으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기업간 경쟁의 촉진되는 사회, 첨단 기술의 발전되는 사회, 정치적 민주화의 달성 등이

이루어진다고 예측할 수가 있다.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는 20세기 우리가 경험한 산업화 사회와 대별된다. 우선 산업화 사회는 석유 또는 석탄을 이용한 동력 기계의 발달이 주 생산 수단이었으나 정보화시대는 컴퓨터가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된다. 시장의 경우 산업화 시대에서는 대량생산 체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유통체제가 발달되었으나 정보화 시대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합치된다. 부의 소유자가 자본가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자 또는 과학자가 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나라의 경우 성장을 위해 수출주도 정책과 사회간접자본육성(부두, 건설등)이 필요하였으나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는 두뇌집단 육성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제도의 경쟁화,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과 미래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각국의 정보 산업 정책의 지원은 특이하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에 있어서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방성, 미국항공우주국(NASA) 및 국립과학재단(NSF)등은 군사산업과 관련

된 반도체 및 컴퓨터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술축진과 산업구조 고도화와 함께 사회의 정보화 확산과 같은 수요확대를 위해 이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예로 5세대 컴퓨터 개발계획, 대형 프로젝트 개발, 차세대 산업기반 연구개발등 정부 공공 주도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 3. 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방향

21세기 산업환경변화의 특징은 기술발전의 가속화, 융합화와 경제활동의 범세계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도화 및 삶의 질 관련 수요의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종래의 중후장대형 중화학 공업 중심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지식자본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지향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WTO, OECD등의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표〉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의 특징

구 분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핵심 기술	동력 기관과 기계	컴퓨터 및 통신
주도 산업	기계 화학공업	지식기반산업
지도 계층	자본가	기술자, 전문가, 과학자
생산 방식	대량생산체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시장	생산과 소비자 분리, 유통시장의 형성	생산과 소비가 일치
문제점	공해, 부익부 빈익빈등	정보독점, 정부공해, 사생활 침해등

관세율 구조의 개편, 표준화, 기술개발, 기업가 정신 부양 및 인적자본의 육성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여야 하며 기업들은 조직의 슬림화 등의 조직개편, 신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증대, 및 창조적 기업가 정신 배양 등이 필요하다.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은 산업화 시대의 대기업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한 주어진 제도하에서의 효율적 기업관 (Marshallian Firm)에서 슈퍼터적 기업의 변화, 경쟁의 완성단계보다는 과정상의 경쟁을 중시하여 기술혁신, 조직혁신 및 상품혁신에서의 경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경쟁정책은 효율성보다는 창조성을 정태적 효율성보다는 동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개인간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 기술혁신이 있게 만드는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21세기에는 범세계화·정보화라는 세계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는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신상품 개발로 창의적인 경쟁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가 정신의 활발한 발휘가 필요한 때이다. 과거와 같은 성장주도정책의 경제의 구조적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근거한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을 계속 쓴다면 기업은 “기업하려는 의지”의 상실로 기술개발증진, 신상품 개발 및 신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고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sup>1)</sup>

21세기에 예상되는 범세계화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진전, 동태적 경쟁의 필요성은 현행 규제 의 문제점이 더욱 부각됨과 아울러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틀의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각국은 1980년대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 틀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가능하다면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방법개선을 통해 가급적 경제에 부담을 줄이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는 가격규제, 진입 규제등 경제적 규제는 완화의 경제논리가 우세하며 환경, 보건 안전 및 사회적 차별규제의 경우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더욱이 21세기에는 소득의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보아 사회적 규제는 가능한 확대될 것으로 본다. 즉 “가능하면 규제완화, 필요시 규제 강화”의 원칙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들은 R&D 투자 확충과, 신상품 개발경쟁, 조직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필요하다. 창조적 기업가의 존재는 신상품 개발과 신 시장개척을 하는데 조직내 마인드가 형성되고 또한 창조적 기업가는 다수가 원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효율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된다. 그외 기능적으로 디자인력, 품질경영, 표준화 및 전략적 제휴 등의 지식경쟁력의 주요요소들도 경영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 4.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1) 현재 세계 45개국가들이 공정거래법을 운용하고 있는바 이들 국가간의 향후 공정거래법의 조화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국의 독점금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의 각국의 추세는 국제적 상황변화를 전제로 운용하고 있다. 정태적 효율성보다는 동태적 효율성에 근거한 합병 및 기업결합규제의 완화, 제휴 등의 조직변화 유도를 통한 인위적 조직개선 방법 지양 및 기타제도의 합리적 운용 등을 통해 국제적 추세에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의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화 시대에서 통용되었던 외생적인 정부 경쟁정책과 내생적인 주류산업내 기업들의 지식경쟁력강화 노력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구성요소인 주류산업내 기술개발유인 제공, 인적개발제도, 표준화 노력, 디자인 개발체제 구축, 조직변화유도등의 요소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적 기업가 창출노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페터형 경쟁을 촉진하고 창조적인 기업을 창출하는 환경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또한 주류산업내 기업들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창조적 기업을 지향하고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배양하고 소비자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주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주류산업에 대한 향후 정책 및 주류산업내 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기업가정신은 그 시대의 역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즉 정치적 리더십과 사람들의 창조성 및 그들의 에너지에 달려 있다. 기업의 기업가정신을 창조하는 것은 기업가적 경영을 하는 국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국가를 둘러싼 환경을 예의 주시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20세기에 세계 경제 대국의 위치를 미국에 빼앗긴 영국의 사례와 최근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를 고수하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재미있다. 미국에 비해 기술개발투자에 인색하고 규제가 많은 영국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경제대국의 자리를 미국에 넘겨주는 수모를 겪고 있다.

기업가 정신측면에서 영국의 경우 1801년 국토통합 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갖게 된

다. 이러한 힘의 배경에는 지칠 줄 모르는 케드버리 같은 유능한 기업가가 있었으며 또한 글래드스톤 수상과 같은 유능한 관리자가 있었다. 글래드스톤은 자유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고 굶주린 기업가들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기업을 영위하였다. 20세기의 영국은 과연 어떠한가? 정부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기업은 창조적 기업행위(Outward looking) 보다는 안정된 경영(Inward looking)을 지향하여 영국의 경쟁적인 기업가정신은 쇠퇴되고 개인의 안정된 현상유지로 창조적인 정신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안정보수 경향으로 인해 영국은 도전적인 미국에 경제대국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영국에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만족시키자는 기업가의 목적, 창조성 및 도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국영화 기업은 비효율적인 정부의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으나 1980년대에 대처 수상의 신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서서히 회복단계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일본은 유학의 영향을 받아 기업에 대한 천대가 있었으나 에도시대에서부터 상인에 대한 위상이 강화되었고, 명치이후 시부사와의 후쿠사와의 영향을 받아 서양식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고, 전통적인 금전멸시, 상인경시의 풍토를 배척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에 따른 기업가정신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수행하였다.

결국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는 열심히 그리고 창조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자동차 및 전자산업에서 보듯이 기업가 정신이 일본기업의 독특한 기업정보구조와 인센티브로 기업 내에

폭넓게 전파,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혁신이 조직적으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21세기의 경제환경은 정보화와 범 세계화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정부는 보다 더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따라서 기업가들은 20세기에 행하였던 뚜렷한 목적의식과 부지런하고 항상 경쟁적인 기업가 정신에서 이제는 개방 경제 하에서 더욱더 경쟁적이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국제적 기업가(International entrepreneur)로 변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뢰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거래비용이 적게 드는 그러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sup>2)</sup>

둘째로 동일 산업내 공정 혁신, 제품개발 혁신 및 시간 경쟁 등의 유효 경쟁이 존재한다면 시장 점유율, 기업수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 벗어나 일본처럼 제휴, 카르텔, 협조적 R&D 행위 그리고 합병 등이 구조 혁신에 기여하고 합리화를 추구한다면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과가 기업가의 혁신과 경영자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제도적 진입제한 또는 전통적인 전략적 진입제한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있어야 한다.

21세기에는 더 이상의 대규모 기업신화는 생기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업가 및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경쟁력 집중 억제 정책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정보 취득 비용의 감소로 세계 시장은 보다 더 완전 경쟁에 가깝게 되어 자원 배분의 정태적 효율성 측면은 부각되지 않고 동태적 효율성이 주된 문제가 되게 된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서의 기업들의 집합체인 그룹식 운영 등은 정보 취득 비용등 거래 비용의 감소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집단체제는 계속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주류산업내 기업들도 네트워킹 형태의 기업조직을 형성하여 네트워킹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여 비교우위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각국별로 기술 패권 주위가 팽배됨에 따라 기업들은 국제규범에 맞는 경쟁질서의 틀에 따라 기업 전략을 구사하여 경쟁 시장에 적응해야 된다. 각 기업은 국별로 전문화된 기술 역량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영이 요구된다. 정보화와 글로벌 경영을 위해 현재의 크기 및 기업 수를 강조하는 계열식 구조는 변화가 예상된다.

셋째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동의를 구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지원, 모든 정부 규제의 재검토, 복수이상의 기업들에 의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 등을 통해 국가의 생산 역량을 증가시키고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창조적 기업(Entrepreneurial firm)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신 경쟁을 만들어 내어 창조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2)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완전 계약의 해결책으로 흔히 신망(信望, Reputation)이 논의된다. 즉,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신뢰(Trust)의 형성은 쌍방간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구성원들간에 공유하고 있는 서로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 즉, 기업문화는 명문화될 필요도 없이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기업 내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기업문화란 기업의 목표 및 당면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체계나 처리방법들에 대한 사고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기업문화는 불완전 계약의 제약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있는 기업이 지식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갖게 된다.

미래의 산업 구조는 지식산업 구조가 확실하다면 지식산업 구조를 위한 장기적인 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 투자는 자금력이 확보되고 기술 역량이 있는 기업이 맡아야 한다. 또한 미래의 기업은 물론 경영 투명성이 보장이 된 이후 “주인 있는 경영”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창조적인 산업의 창출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회사, 밀리켄사, 월마트사, 마즈사와 같이 소유가 집중된 기업의 경우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투자자들이 단순히 배당금만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가역성이 큰 기술투자가 선행되고 있다. 소유의 분산보다는 집중

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로 주류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자인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신 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를 위한 디자인력의 강화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될 것이고 또한 환경문제는 기술개발과 때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류산업내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아울러 폐수문제, 오존층 파괴, 환경자원 재활용등의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

The real meaning of travel, like that of a conversation by the fire-side, is the discovery of oneself through contact with other people, and its condition is self-commitment in the dialogue.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모닥불 옆에서 나누는 대화의 의미처럼,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의 조건은 그 대화에 몰두하는 것이다.

- Paul Tournier -